

여군의 창설과 발전

閔 慶 子*

1. 머 리 말
2. 여군의 건군기(1948~1953)
3. 여군체제 정립기(1954~1989)
4. 여군의 성장 발전기(1990~현재)
5. 맺 음 말

1. 머 리 말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특히 민족 수난기에는 늘 그래왔듯이 이름없는 민초(民草)들이 의병(義兵)을 자처하고 구국의 대열에 동참하여 끝까지 항쟁하면서 꺼져가는 민족의 등불을 기어이 살려내곤 하였다. 그리고 이 대열에는 언제나 여성들도 함께 하여 왔으니 이름하여 이 땅의 애국여성(愛國女性)들이라 총칭할 수 있겠다.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 등의 여성들의 활약은 잘 알려진 바와 같으며 그 이전시대에도 국운(國運)에 따라 함께 하기

를 주저하지 않았다. 가장 가까이 현대사에 있어서 최대 민족의 비극이자 국난인 6·25동란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애국여성들은 분연히 일어나게 되고 사상(史上) 최초로 정규군에 편성되어 군번을 부여받고 참전하게 된다. 이들 애국여성들의 후예들은 여성(女性)이기에 여군(女軍)이라 불리워졌으며, 그 이후 군 조직에서 독특한 정체성(正體性)과 전통을 유지하며 성장발전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각 군 속에서 남군과 완전통합체계를 유지하며 사회 우수 여성 집단의 일원으로 국방 분야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 여군의 태동은 정부수립 이후 사회적 혼란기에 조직된 중등학교 이상 학도호국단의 교련교사로 양성된 여자배속장교로부터 시작되었다. 6·25동란이 발발되자 이들이 주축이 되어 피란지에서 구국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애국여성들을 모집, 육군(陸軍)에서 여군(女軍)을 창설하게 되었는데 이름하여 여자의용군(女子義勇軍)이다.

이들은 전방 사단으로부터 후방지역에 이르기까지 참전하면서 통신지원, 선무 및 심리전, 정훈활동, 군수 및 보급, 유골안치, 군악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참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직접적인 전투력 지원에도 의의가 있다 하겠으나, 젊은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전장에 뛰어든 사실은 장병의 전의 고양은 물론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북돋아 준 면이 더욱 크다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전시 중 활발한 임무수행을 해 오던 여자의용군은 전쟁이 소강상태에 놓이게 되자 대다수는 그 역할을 다하고 원에 의거 대량 귀가 조치되고 잔류된 인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정비와 함께 여군(女軍)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정규군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여군의 역할은 행정기술병과 중의 하나인 '여군병과'(女軍兵科)로 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임무를 수행하여 왔고 1990년에 이르러 사회 여성인력 활용 확대 추세와 병행, 여군의 잠재역량에 대한 인식제고로 육군 내에서 여군병과를 해체하고 제병과로 통합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후 이를 근간으로 1990년대 말부터 해·공군도 개방되어 명실공히 국

* 전 국방부 국방여성정책팀장

방여군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 우수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사회구현이라는 국가발전 과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할 것이다. 발전적 시대로 이어지고 있는 이들의 노정을 돌아보며 국가방위에서의 여성역할을 통해 영광과 교훈을 찾는데 의의를 갖고 작성하고자 한다.

2. 여군의 건군기(1948~1953)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말경은 광복 후의 혼란시기로 좌우익의 극렬 대립으로 학원가에까지 소요와 혼란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면학 분위기마저 훼손되고 있었다. 이들 좌익세력으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하여 국방, 문교 양부의 합의에 의하여 중등학교(中等學校: 당시의 중등학교는 오늘의 6년제임) 이상의 학교에 학도호국단을 조직하고 교련과목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시행하려 하였으나 이를 지도할 교련담당 교사의 확보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문교부는 이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 전국의 중등학교 이상 각급 학교의 통솔력이 있고 유능한 체육교사들을 교련교사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¹⁾ 이 계획은 곧 국방부와의 절충을 통하여 체육교사들로 하여금 군사교육을 필하게 한 다음 담당케 하는 이른바 '배속장교 양성반' 설치로 확정되었으며 훈련은 육군사관학교에서 담당하기로 하였고 제1기생 233명이 1949년 2월 5일, 제2기생 157명이 3월 29일에 각각 예비역 소위로 임관되었는바 이들은 모두 남자로만 구성되었다.²⁾

이즈음 여학교와 여자대학교의 학도호국단 간부 여학생을 훈련시킬 교관

요원의 양성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어 배속장교 3기로 여자배속장교 양성을 계획하였다.

(1) 육군 여자배속장교 및 간호장교

1) 여자배속장교

여자배속장교 양성에 앞서 당국에서는 여자 중등학교 체육교사, 여자 대학의 체육과 학생 또는 자격을 갖춘 상급반 여대생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해오던 조선민족 청년단원 등 100여 명의 여자들로만 구성된 「여자청년호국대지도자 훈련」을 1949년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구 서울사범대학(현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하였으며,³⁾ 훈련을 마친 이들은 전원 학교나 직장으로 복귀하였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장 추천에 의거 32명을 여자배속장교로 재소집하여 동년 6월 30일부터 1개월간 배속장교 제3기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대상으로는 여자청년 호국대 교육을 맡았고 여자경찰 창설요원의 교육대장 임명을 대기 중이던 김현숙(金賢淑)을 초빙하였다.

교육내용은 제식훈련, 독도법, 각종 화기학, 분·소대 전술, 각개전투, 지휘통솔법 등으로 남자배속 장교들과 달리하지 않았고, 동년 7월 30일부로 문인현 외 31명이 육군예비역 소위로 임관되었으며 김현숙 교육대장은 동일자로 예비역 중위로 임관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임관 후 각 학교로 복귀하였으나 김현숙 대장과 일부는 중앙학군 훈련소 학도호국단에 학생간부를 교육시키기 위한 여자훈련소가 설치되자 이들의 교육을 위해 잔류하였는데 동년 9월 27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학도호국단이 폐지되자 여자훈련소의 여자배속장교 중 김정례, 박을희, 박복순은 당시 박순천(朴順天)이 주

1) 병무청, 『병무행정사』(1985), p. 256 및 육군본부, 『학생군사 교육발전사』(1986), p. 62.

2)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30년사』(1978), p. 113.

3)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방사』 제1집(1984), p. 391.

도하던 대한부인회에서 조직한 여자청년단의 조직국장, 훈련국장 등으로 임명되어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여자청년단 지부를 조직함과 동시에 단원들에게 1주간의 합숙훈련을 통하여 제식훈련과 정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 여자배속 장교들은 국가 위기를 맞기 이전에 이미 호국 활동에 선봉이 되어 있었으며, 그 중 김현숙 예비역 중위는 신성모 국방장관실에 소속되어 국군 제14연대가 일으킨 여수, 순천 사건으로 인해 지리산과 영덕 등지의 공비토벌작전(共匪討伐作戰)중 생포된 여자공비의 전향을 위해 현 지출장 명령을 받고 임무 수행하던 중 한국전쟁을 맞게 된다.

이상으로 육군의 여자배속장교의 양성 및 활동에 관하여 최초의 여군역사를 정리해 놓은 여군 33년사와 이후 많은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보완된 여군 45년사를 중심으로 재작성하면서 알 수 있었던 점은 의식 있는 애국 여성들은 결코 안주하지 않고 나라사랑 대열에 자연스럽게 동참하였다는 점과 제2차 세계대전 종식결과 일제로부터 독립하였던 한반도에는 이미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의 씨앗을 내포하고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정부가 남북한에서 각각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수립됨에 따라 크고 작은 대립과 충돌이 끊이지 않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통합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한가운데서 여자배속장교는 출발하였으니 당시 혼란스러웠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등불이었던 셈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들 의식 있는 엘리트 여성들의 나라사랑 실천의 행동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2) 간호장교

육군의 간호장교는 여자배속장교보다 먼저 시작되었으나 그 임무와 특성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창설배경부터 다르다.

1948년 5월 1일 제1육군병원이 창설되자 군병원에 필요한 간호 인력을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미 군정청에 한국 간호장교단 창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우수한 간호장교 후보생 선발을 위해 미군 간호장교와 민간병원 간호과장들을 통해서 민간면허를 가진 간호사를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여 150여 명이 지원한 가운데 최종 31명을 선발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1948년 8월 26일 입대와 동시에 간호후보생 제1기생 소위로 임관되었다.

제1기생들 중 서구식 교육을 받은 7명은 제1육군병원에 배치되었고 서구식 교육을 받지 못한 24명은 제382후송병원에 배치되어 각기 임무수행과 교육훈련을 받았다.

6·25동란 이전 초창기 간호장교의 양성은 총 5개기 120명이었으며 제1기를 제외하고는 제1의무단과 육군군의학교에서 약 15일에서 40일간의 교육을 이수하여 실무에 투입되었으며, 기 언급된 군내의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난 1948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차출된 간호장교는 제1기생 중 제1육군병원의 3인(소위 김순봉, 김재명, 이종화)으로 이들은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간호사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간호에 임하였다.

이처럼 여·순반란사건과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 직접 참가하는 등 본격적인 군 간호 활동이 시작되고, 군병원 또한 계속 증설되어 나날이 증가하는 간호업무와 인력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게 되자 이를 관장할 간호부서가 필요하게 되어 1949년 5월 1일 육군본부 의무감실 내 의무과 예하에 간호계를 신설, 간호업무를 전담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미구에 맞게 될 전쟁기간 중 눈부신 봉사와 희생으로 점철된 간호활동으로 장병의 수호천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하겠다.

(2) 공군 여군 및 여자항공교육대

여자항공교육대의 탄생배경에는 여류비행사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창군기 공군에 입대한 이정희(李貞熿, 일본비행학교에서 이등비행사 자격 취득)가 있었는데, 그는 해방 후 항공계 남성들과 함께 한국항공건설협회에 관

여하면서 항공사상계몽을 통하여 항공계에 여성의 진출을 도모하였고 보다 적극적으로 후배를 양성하겠다는 결심하에 여자항공대 창설을 주도하게 되었다.

1949년 1월 10일 당시 44세라는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위로 입대하여 1949년 2월 15일 육군항공사령부 예하 여자항공교육대가 창설되자 운영의 주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정희는 6·25전쟁 발발 직후 실종되었고 그 구심점(求心點)을 잃은 여자항공대 역시 항공계 여성 진출이라는 애초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여자항공교육대는 여성들의 항공분야 가능성을 확인하고 각 방면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정비, 통신, 항공, 조종 등)을 통해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여 진출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창설하였으며, 제1기 대원 15명이 이등병으로 입대함으로써 그 운영이 시작되었고, 1949년 10월 1일 공군 독립과 함께 여자항공대로 개칭되었다.

이들 1기생들은 기본 군사훈련 후 통신, 정비, 기상 조종과목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았는데 군사훈련 내용에 있어서는 하사관 및 병 양성과정인 항공병 3기생과 큰 차이가 없었다. 1기에 이어 이듬해인 1950년 2월과 4월에 걸쳐 역시 여자중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과시험을 통과한 39명이 2기생으로 입대하였다. 이들 역시 이등병 계급을 부여받고 1기생들의 지도 아래 기본군사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각 기술 분야의 이론교육을 받던 중, 입대 후 대략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25전쟁을 맞게 되자 더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여자 공군은 육군 항공의 여자항공교육대로 시작되어 공군여군의 모체가 되었으며 그 연속선에서 이를 공군여군역사의 기점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공군여군의 출발은 상당히 선진화된 의식으로 여성인력 활용 차원에서 산뜻하게 시작되어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실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조직관리, 전문성, 효율성이 미처 배양되지도, 발휘되지도 못한 채 해체되어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으며, 오랜 시간이 경

과된 후 각 군 여군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고 개방될 때 공군이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했음을 볼 때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아쉬움이 반영된 듯한 면도 있으리라 본다.

이상 한국전쟁 이전 각 군 관련 여군활동을 보면 공군여군의 창설과 양성노력이 있었으나 전쟁발발과 함께 종료되었고, 군에서의 여성, 여군의 활동은 정부수립 직후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시대가 요구하는 의식 있는 여성들의 사회적 동참, 특히 군을 통한 참여로 여성들이 화답하고 실천한 것이라 보며, 이는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향후 군내 여성인력의 기틀이 서서히 잡혀 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3) 6·25 참전과 여군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당시 지리산 공비특별 작전지역에 내려가 여자 공비 전향 계몽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던 김현숙 일행은 1950년 6월 25일 전쟁발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상경, 이튿날인 6월 26일 서울에 도착 후 육군본부에 들어갔으나 다시 대전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 길로 대전으로 가서 「여자의용군」을 창설하게 되었다.

젊은 장정이 하루에도 수없이 쓰러져 가는 국난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여자라고 가만히 앉아서 남성에게 의존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병역의 의무는 아직 없지만 호국정신의 깃발 아래 출전(出戰)을 자원(自願)하는 애국여성들에 의한 여자의용군(女子義勇軍) 모집을 신성모 국방장관 등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떻게 싸울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김현숙을 비롯한 여자배속장교 출신들의 애국심과 진정성에 의해 동년 7월 말부터 8월 초순 무렵 피난지 대구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여자의용군 모집 승인을 득하게 되었다.⁴⁾

최초 500명 모집을 계획하였는데 모병활동 결과 부산과 대구에서 각 1천 명씩 2천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지원하였다. 지원 자격은 18세~25세까지의 미혼여성으로서 중학교(당시 6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선발하였으며, 합격자는 9월 초에 발표되어 부산 성남국민학교에서 부산지역 합격자들과 합류, 2~3일의 준비기간을 두고 동년 9월 4일 여자의용군 교육대 4주 교육 예정으로 입소식이 거행되었다.

초대 교육대장으로 소령 김현숙이 취임하였으며 이에 앞서 1950년 9월 1일, 국일명(육) 제58호로 경남 부산에서 제2훈련소 예속으로 여자의용군 교육대가 창설되었다.

높은 경쟁을 뚫고 선발된 여자의용군 제1기생 대부분은 학교 교사이거나 중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었으니 당시는 elite 여성들이었다. 여자의용군 창설에 참여했던 여자배속장교는 소령 김현숙 외 10명으로 이들은 동년 10월 23일에야 이르러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편입되었다.

여자의용군 제1기의 교육훈련수준은 하사관의 수준에 맞추어 분대전투 수행 능력까지를 목표로 정하였다. 훈련과목은 화기학, 분대전투, 도수각개 훈련, 실탄사격, 독도법, 야간훈련 등 보병으로서의 기초훈련에 치중하였고 당시는 무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개인 화기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복장은 남자용 전투복과 전투모를 그대로 착용하고 머리는 모두 단발로 하였다. 이들 여자의용군 제1기생 500명은 훈련도중 동년 9월 19일 부산 시내를 시가행진함으로써 전란 중 부산시민에게 국토방위에는 남·여가 따로 없다는 사실과 애국심에 불타는 젊은 여성들의 피끓는 충정을 보여 주어 부산시민의 정신계도에 기여하였으며,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격려와 환영을 받았다. 이렇게 3주간의 맹훈련을 거친 1기생은 동년 9월 26일 491명이 역사적인 수료식을 가짐으로써 사상초유의 육군 여자의용군이 탄생되었다.

1) 여자의용군 참전활동

수료식을 거행한 제1기생 491명은 여자의용군교육대에 20명이 자충(自充)되고 나머지 471명은 육군본부 본부사령실 제5중대로 전입되어 국방부 및 육군본부 부처감실과 제무대, 통신보급대대, 조달감실 등에 배치되어 필서행정 등의 분야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제1기생을 배출한 제2훈련소 예속의 여자의용군교육대는 동년 10월 12일 해체되고 부산성남초등학교 주둔지에서 훈련소로 창설되었으며 동년 10월 14일 육군본부 환도와 함께 이동하여 서울 일신초등학교(현 퇴계로 극동빌딩자리)에 주둔하게 되었다.

서울 환도로 모집된 제2기생은 대부분이 재학 중인 여학생들로 1950년 12월 10일 입소하여 훈련을 시작하였고, 동년 12월 18일 중공군이 개입하여 전세가 악화되면서 서울 일신초등학교에 주둔 중이던 여자의용군훈련소는 전략상 다시 경남 부산시 대신동 경남상업고등학교 기숙사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제2기생들은 교육주기를 3주에서 17일간으로 단축하여 동년 12월 17일 383명이 수료하였고, 이들은 1951년 1월 10일부터 각 군단 및 사단에 11명, 육본 75명, 육군 야전 제 부대에 28명, 장교임관 6명, 예술대 55명이 각각 배치되었다.

또한 1기와 제2기생 중에서 경리학교, 통신학교 무선통신과, 보급통신과를 선발, 활용분야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단 및 사단에도 여자의용군을 배치하기로 결정되어 소대장 요원으로 1, 2기생 중에서 현지 임관시켜, 동년 1월 12일부터 각 군단 및 사단에 장교 1명, 사병 9명씩을 배치하였다. 한편 인천상륙작전과 동시에 파죽지세로 퇴각하는 적을 쫓아 38선을 돌파하였으나 당시 북한의 정치적, 문화적, 사상적 조건상 북한 주민에 대한 대민 선무공작의 긴급성이 요청됨에 따라 동년 11월 24일 정훈 제1대대와 제2대대를 창설하게 되었으며 임무의 성격상 여성이 필요하게 되어 여자의용군 보충이 검토되었다. 그리하여 정훈 제1·2대대에 81명의 여자의

4) 『여군 45년사』(1996), p. 72.

용군 장·사병이 배치되었으며 이들은 일부 배속장교를 제외하고 전원 여자의용군 1기생으로 구성되었다.

정훈대대가 지역별로 활동하던 1951년 5월까지의 주로 포스터제작, 대민 보도상황, 시각공작, 대민계몽교육, 문맹퇴치, 대적방송, 벽보발간, 진중신문발간, 군가보급, 군내 사병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제1·2대대가 하나로 통합 재편성되면서 동년 7월부터 대대전방 참호속 사병교육 실시 임무를 받아 토론회, 웅변대회, 학과, 체조지도, 개별 담화 정훈 하사관 교육, 전공조사, 여론조사 등의 업무분야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1951년 12월 2일 백야전 전투사령부 지원부대로서 토벌작전 지구내 대민 선무교도 계몽공작과 대적 귀순촉진 및 원호 공작을 실시하였다. 이 작전이 끝난 후 1952년 9월 25일부로 정훈대대가 해체되면서 여자의용군도 복귀하였는데 그동안 정훈대대의 모든 작전에 여자의용군 정훈 장·사병은 혼신의 정열을 다하여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특히 이들 중에서 임무수행 중 1명이 전사하고 3명이 실종되었으니 그 진정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높이 평가되어 많은 수상자를 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여자의용군들은 1951년 전반기 국군의 후퇴와 전진이 반복되고 가장 빈번한 부대이동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현지에서 전투근무 지원 중 당시 제3사단 본부중대 소속의 2등 중사 권이순이 강원도 속사리에서 전사하게 되고 이 소식에 비탄이 자자하게 되었다. 또한 동년 6월 소련측 휴전제안으로 전면전은 중지되고 전쟁이 소강상태에 놓이게 되자 부대별로 대구에 있던 제1보충대로 전속시켜 동년 8월 12일 제6사단을 마지막으로 전원 후방으로 철수케 하였다.

전방부대에 배치되었던 여군이 철수된 후 일부를 제외하고는 후방지역에서 마땅한 임무를 찾기 어려워 전화나 차 당번으로 국한 활용됨으로써 전력증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입대 당시의 숭고한 정신에 비하여 부여되는 임무에 스스로 실망을 느끼면서 귀가를 원하는 인원이 예상보다 많아 대량 제대하게 되고 의용군 제2

기를 배출한 후 별다른 활용방안이 없어지자 간호장교 및 사병에 대한 군사기초훈련을 실시하다가 1951년 11월 15일에 여자의용군 훈련소는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여자의용군 훈련소는 애국여성을 모집하여 정규 군인으로 양성·배출함으로써 남성과 동등하게 일선에서의 군복무를 통하여 조국을 위해 헌신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으나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전쟁에 투입될 병력양성이 그 임무이기 때문에 배출 이후 여자의용군에 대한 인사관리, 활용 등 전체를 지휘통솔하며 관장하기에는 제한되었으므로 이 모든 문제점을 과감히 해소하고 조직적이며 집약된 지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기관인 여자의용군 훈련소를 해체하고 대안으로 육군본부 부관실 내에 여군과를 설치하여 군에 잔류하여 각 국감실 및 부대에 배속된 여자의용군(이후 여군)에 대한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 수행하도록 했다.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점은 최초로 '여군'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 점으로 창설 초기부터 자발적 군복무를 의미하는 의용군이라는 명칭으로 참전을 하여 왔는데 '여군과'가 설치되면서 공식적으로 '여군'으로 신분전환되었으니 이른바 '여군'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한편 육군 외에 타군에서의 여자의용군 활동으로는 해군 여자의용군을 들 수 있겠다. 이들은 당시 해병대에서 참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한국 해병대는 창설된 지 1년여가 지나지 않아 해군 참모총장의 작전지시와 행정지시를 받았다.

해군 여자의용군의 입대 당시를 살펴보면 1950년 8월 중순경 낙동강 전선에서 완강한 적의 공세를 물리치면서 총 반격작전을 시도하고 있던 때로 한국 해병대는 총 반격작전(인천상륙작전)의 선봉이 되기 위하여 당시 제주도의 중학교 학생과 교사, 청년 등 3천여 명을 4개기로 모집하여 3개 보병대대를 증편하게 되는데 8월 31일 입대한 제4기생들 속에 126명의 여자의용군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군 당국(당시 해병대 사령관 신현준 대령)은 일선으로 출동하는 남자

해군들을 대신하여 여자들에게 후방지원 업무를 담당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입대를 허용했다고 한다. 이들 해군 여자의용군 대부분도 여학생들이었으며 교사양성소 학생 20여 명과 현직 교사 일부도 포함되었다.

태극기를 가슴에 두르고 제주 북초등학교에서 남자 해병 제4기생들과 같이 입대식을 가짐으로써 해군 역사상 최초로 여자의용군이 탄생하였으며 이는 육군 여군이 동년 9월 1일부로 창설명령을 받고 9월 4일 입대식을 실시한 것보다 빠른 것이다.

입대식 후 이들은 해군 수송함을 타고 출항, 9월 2일 진해 경화국민학교에 도착 후 통제부 여군중대로 편성되어 9월 20일까지 신병 기초 훈련을 받았고 이후에는 해군 신병훈련소 특별 분대에 편입되어 10월 10일까지 40여 일간의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수료와 동시에 장교, 예비병 조장, 예비 1등, 2등 병조, 예비 1등수병 등 71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교육을 마친 이들은 해군본부와 통제부에 배치되었으며, 간호원, 홍보요원, 예비서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부는 위문공연단을 인솔하고 극장섭외 등의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국군과 UN군이 압록강에 도달 남북통일이 임박할 무렵 1950년 11월부터 1~2개월 간격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대하였으며 휴전회담이 개시되어 전선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인 1951년 7월 장교 4명을 제외한 전원이 제대하였고, 1955년 1월 17일 원순덕, 이순덕의 마지막 전역으로 해군 여자의용군은 1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

2) 간호장병 참전활동

6·25전쟁 발발 당시 의무감실, 위생재료창, 육군군의학교 외에도 5개의 육군병원과 1개의 요양원에 의무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쟁이 발발하자 급격히 증가되는 전상자 후송 및 치료를 위해 부대 창설과 인력보충을

계속하여 1953년 휴전협정 조인시에는 육군병원 15개, 정양병원 3개, 이동외과병원 8개로 총 43,600침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일일 평균 입원환자는 22,800명이었고 최고 52,500명까지 입원하기도 하였다. 간호병과도 창설 이후 계속된 병원설치 및 증편운영으로 한국전쟁 이전까지 간호후보생으로 임관한 간호장교는 1기에서 5기까지 120명으로 그간 12명이 퇴역하여 1950년 기초인원인 108명이었고 연말기준 1950년 321명, 1952년 302명, 1953년 598명을 운영하였으나, 이 인원으로 일평균 22,800명의 입원환자를 간호하기에는 동원된 민간간호사와 군인가족, 학생들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다.

모집시 지원방법과 선발방법을 간소화하여 연령을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확대, 각 독립병원 간호사와 간호사 면허소지자를 현지 임관시켰으며 각 지방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민간자격 간호사 64명을 1950년 9월 5일 6기로 동년 9월 19일 7명을 7기 간호후보생 소위로 각각 현지 임관시켰고, 동년 10월 15일에는 8기 58명을 제1육군병원에서 모집 15일간의 교육 수료 후 11월 1일 소위로 임관시켰으며 동년 11월 18일에는 2명을 현지 임관시켰다.

또한 동년 11월 12일 9기 80명, 1951년 2월 6일 10기 35명을 동란 기간 중 창설된 여자의용군 훈련소에서 모집, 각각 10일과 20일간의 교육훈련 후 1950년 11월 24일, 1951년 3월 1일 각각 소위 임관시켰으며, 이 기간 중 임관된 인원은 25명으로 전쟁 초기 혼란 상태에서 급증하는 간호인력 보충을 위해 현지 임관 또는 단기간의 교육만을 마치고 각 육군병원에 배속시켰다.

한편 육본 의무감실은 전쟁이 발발하자 대구로 이동하였으나 간호계장은 합류하지 못하여 공식으로 두었다가 평양에서 제27병원이 후퇴하여 대구로 이동함에 따라 그 병원의 주임장교인 장경희 중위를 1951년 3월 1일부로 2대 간호계장에 부임 후 간호인력 획득방안 모색과 이동외과 병원 및 열차 간호장교 배치, 간호업무 향상방안 등 그동안 쌓여있던 간호문제 해결을

위해 갖은 노력을 통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1951년 12월 1일에 3대 간호계장인 김경진 대위와 교체되었다.

3) 여자학도의용군 참전활동

여자학도의용군은 크게 4분류로 구분하게 되는데 현역신분인 여자의용군으로 참여한 학생들과 학생의 신분으로 각 전투부대에 자원입대하여 군번 없이 전·후방에서 활동한 순수한 의미의 학도의용군이 있으며, 유격대활동에 직접 참가한 경우와 후방지역에서 주먹밥을 만드는 등 보급 활동 참여와 간호원으로 참전한 지원 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전 여자학도의용군들의 증언을 토대로 전투부대에 참가한 여자학도의용군들의 활약상을 보면 제1군단, 제1사단, 3사단, 6사단, 7사단 등 최전방에서 주로 방송선무공작활동, 부상병간호, 군악대와 함께 위문활동, 행정보조 업무 등을 하였으나 이들 중에는 인민군을 귀순케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인민군에게 납북되었다가 구출된 후 압록강 초산진까지 북진한 의용군도 있었고, 제3사단 홍남 철수시 후퇴도중 홍남여고생 10여 명이 전원 사망한 바도 있으며 제7사단과 함께 개천까지 북진했다가 후퇴도중 춘천여고생 2명은 끝내 후퇴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한편 후방지역의 여자학도의용군은 지역에서 학생비밀결사대를 조직, 춘천 등지에서 비밀방송 청취나 빠라살포,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 설치 등 위험을 무릅 쓰고 활동하다가 북한군에게 체포되어 총살당하기도 하였으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 병원에서는 부상 장병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간호의 손길이 부족하자 여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도 증가하여 부산의 제3병원 및 제5병원의 간호사는 거의 여학생들이 전담했으며 울산 및 경주의 야전병원까지 상당수의 여학생 간호원이 활약하였다. 여기에 참가한 사람의 이름은 물론 그 숫자도 거의 밝혀지지 않았고 간혹 그 일부가 세상에 알려져 세인의 주목을 받았을 뿐이다.

4) 각 유격대의 여성 활동

유격대는 적군 점령 치하에서 지하투쟁을 하다가 1·4후퇴시 남하하여 주로 서해 도서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였으며 여기에 상당수 여성들이 참가하여 남자 못지않은 공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각 유격대의 알려진 여성 활동을 살펴보면 개마고원 유격대, 태극단, 구월산 유격대, 웅진학도유격대, 백마유격대, 백호유격대, 제5186부대 직속 유격대, 각 지방 유격대 등에서 목숨을 걸고 맹활약을 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들은 주로 여학생과 교사들이었으며 임무는 매우 다양하였는데 유격대별 특징적인 활동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마고원유격대는 한국전쟁 이전에 개마고원에서 결성된 조직으로서 인민학교 여선생을 비롯한 여학생 10여 명으로 주로 태극기 제작, 유격대원간의 정보연락, 첩보수집, 유격대원의 뒷바라지 등을 하였으며, 태극단은 경기도 고양군과 파주군 일대 학도호국단 학생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비밀반공단체로서 이들은 국군이 한강이남으로 후퇴할 때 적의 후방을 교란하였고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 수복작전을 벌일 때는 경의선을 절단하는 등 활약이 컸으며 이들 중 여자대원은 총 9명이었다.

구월산 유격대는 여성대원이 30여 명이 있었고 재령부대의 구출작전시 자원 인도하기도 하였으며 웅진 학도유격대는 전쟁 전부터 웅진지구 반공학생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51년 2월 4일 서해도서로 철수 후 웅진학도의용대를 결성하였으며 여기에는 학도호국단 출신의 여학생 30여 명이 있었다.

이들 여학생들은 처음에는 교환과 간호업무와 같은 후방지원 임무가 중심이었으나 후에 일부대원들은 첩보수집이나 아군 유격대원들의 은거지 마련과 같은 유격부대의 주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백마유격대는 1950년 11월 22일 평북 정주에서 창설되었는데 여자도 50여 명으로 대부분 피난 중에 자원입대하여 훈련을 거쳐 첩보업무를 맡았다.

육도(陸島)를 근거지로 황해도 지역에서 유격작전을 수행했던 백호부대는 10여 명의 여자대원들이 여성의 특성을 십분 발휘하여 정보공작대원으로 공훈을 세웠으며 의무대원 또는 통신대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제5816부대 유격대는 여자대원이 15명 정도 있었으며 이 중에서 차영숙 등 10여 명은 별도로 제1사단에서 정보수집 교육을 받았고 때마침 남자들의 적 지역 침투가 매우 어렵게 되자 중학교 2~3학년의 어린 여학생들을 침투시켜 첩보 수집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활동이 용이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상으로 6·25동란 기간 중 다양한 신분과 위치에서 직접적으로 참전하고 지원하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오로지 한마음으로 애국충정을 실천한 이 땅의 수많은 여성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숭고한 애국심은 나라가 가장 위협에 빠졌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활짝 꽃피웠으며 이를 계기로 오늘날 여군이 탄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니 그 의미가 매우 깊다 하겠다.

3. 여군체제 정립기(1954~1989)

육군 고급부관실(부관감실)에 편성되어 있던 여군과는 1954년 1월 1일부로 인사처 여군부로 승격 개편, 일반 참모부서인 인사국예하로 두어 보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군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1959년 1월 1일부로 육군본부 편제상의 기구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참모부장 제도가 채택됨에 따라 인사국이 인사참모부로 승격되어 여군부도 여군처로 개편되었다.

이후 1970년 12월 1일부로 육군본부 직할 독립부대로 여군단이 창설되어 장기간 동안 여군병과 발전을 구가하였다.

여군과 설치 당시 교육은 보병학교, 고급부관학교, 논산훈련소 등지로 분산됨으로써 여군본부와 교육기관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모집된 여군은 행정기술요원이었으므로 남자 군인과 동일한 훈련의 불필요성 및 동일지역에 거주함으로써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독자적인 여군 양성기관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었고, 1955년 7월 10일 서울 서빙고에 교육총감부 예속부대로 여군훈련소를 정식으로 창설하고 훈련소장에 여군부장인 김현숙 대령이 근무토록 하였으며 교육은 여군사병 제4기부터 실시되었다. 이후 육군본부 직할 여군단 예속부대로 변경되었다.

(1) 여군체제 정립 및 주요활동

여군과, 여군부, 여군처, 여군단에 이르는 시기에 주요 근무활동 사항으로는 심리전요원 활동, 감찰장교 특파활동, 장교 월남전 참가, 전산, 사격 분야 활동, 공수특전요원 배출 등을 들 수 있으며 진행되었던 주요제도 개선사항으로는 기술병 양성과 타자기술 도입, 여군하사관 복무규정, 정예화 계획, 여군장병 결혼, 출산 제한 및 허용, 여군병과 전환검토 등을 들 수 있다.

기술병 양성과 타자 기술도입은 여군활용과 연계해서 매우 중요한 제도로 한국전이 점차 진지전에 돌입하게 되자 귀가하지 않고 잔류하고 있던 대부분의 여군사병은 숙달된 주특기 없이 기초 군사훈련만을 이수하고 참전하였기 때문에 임무가 불분명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때 백야전 전투사령부와 서남지구 공비토벌사령부 포로 심문관으로 근무하다 복귀한 홍소운 대위는 여군의 주특기 확보가 절실함을 인지하고 있던 중 공병우 박사가 한글 타자기를 처음으로 개발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군의 행정처리가 신속,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타자기술을 도입하고 여군이 이를 숙달하여 주특기로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여군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주특기를 갖고 임무수행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임무수행을 통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소운 대위는 공병우 박사를 찾아가 협조를 구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노력 끝에 배운 타자기술은 각 군에 전파되어 군의 행정이 사회행정을 앞서가는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군으로서의 가능분야를 처음으로 개척한 것으로 군 당국에서는 양성된 여군이 행정기술 분야를 담당케 함으로써 더 많은 남자 군인을 전문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 비로소 여군사병의 장기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

다음은 여군하사관 복무규정으로 여군사병은 복무기간 2년이 만료되어 복무연장을 원할 경우 심사를 통해 하사관으로 진급, 계속 복무할 수 있었으며 기타 혜택은 남자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희망하는 인원에 비해 인가가 적어 점차 정체현상이 대두되었고, 이 때문에 장기복무 희망자의 임용까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967년 4월 1일 육군규정에 여군하사관의 복무연장 조항을 신설, “상사 5년, 중사 4년, 하사 4년을 복무하되 계급별로 1회에 한해 2년간 복무 연장”하는 제도로써 상사의 경우 사병 근무경력 2년과 합해 최저 15년에서 최고 21년까지만 복무토록 규제하였다. 이로써 남자군인과의 형평성 위배라는 논란의 소지를 내포한 4.4.5제는 여군병과 전환 직전까지 적용되었다.

한편 의무복무가 아닌 여군사병의 직업성 보장과 자질 향상 차원에서 여군하사관 정예화 계획을 수립, 1974년부터 학력과 연령을 높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 초임계급을 하사로 부여 여군사병의 신분을 초급간부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수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여군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비합리적, 비현실적인 제도라 치부되어온 여군의 임신으로 인한 전역 등에 대한 육군 규정 제정이다.

1950년 여자의용군 사병은 미혼여자에게만 입대자격이 주어졌으나 1959

년 여군하사관 복무규정과 1961년 장교인사관리규정의 의하면 사병은 독신자, 장교는 독신자 혹은 기혼자일 경우 7세 미만의 자녀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 등 미혼이 아니어도 입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1963년 개정된 규정에서는 장교와 사병 모두 기혼자는 입대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이후 미혼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반면 복무도중 결혼과 출산에 관한 변천을 보면 창설 당시 장교는 결혼이나 출산에 규제가 없었고, 사병에게는 모두 허용되지 않았다. 1959년 하사관 복무규정에서는 중사 이상에게 결혼이 허용되었으나, 1964년 하사관 임용 및 복무규정을 제정하면서 여군의 복무조항으로 복무기간 중에는 결혼할 수 없도록 다시 규제하였다.

한편 장교는 1961년부터 결혼은 가능하나 출산은 허용하지 아니 하였고 기혼자일지라도 임신한 경우 전역 조치되었다. 이는 당시 여군운영상 임신으로 인한 업무의 지장과 지휘관 직위자의 근무곤란, 인력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규제하게 된 것으로 1964년 6월 15일 육군규정 600-37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분리 규정 제44조에 여자장교 및 여군하사관의 임신으로 인한 전역조항을 신설하여 강제전역 조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이 규정으로 말미암아 우수한 인력이 군에서 유출되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 승소하여 전역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고 육군규정 수정 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개정되지 않다가 1988년에 이르러서야 전면 수정, 개정되었다. 참고로 간호장교는 제외되어 임신이 허용되었다.

먼저 하사관 결혼허용 사항으로 정원 범위 내에서 결혼 적령기의 여성들로 구성된 조직의 특성상 쉽게 허용되지는 않았다. 1983년 여군단본부와 인사참모부 제도와 공동으로 여군하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영외거주 중사 이상 하사관에게 장교와 동일하게 결혼만 허용하는 것으로 연구하여 보고하였으나, 당시 참모총장이던 황영시 대장의 부결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후 1984년 정호용 대장이 취임하자 제12대 여군단장이던 김현순(金賢順) 대령은 동일 문제를 가지고 여군하사관 인사관리제도 개정 건의를 제출하여 육본 인사참모부 제도와 주관으로 정책심의회에 회부한 결과 가결되어 1984년 5월 30일 여군중사 이상에게 결혼이 허용되었다.

다음은 결혼장병 출산허용 문제이다.

육군 규정에 의한 출산규제는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공무원 규정, 군인복무규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여성의 직업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함을 여군 개인은 물론 군내 간부들도 자주 거론하였다.

1986년 권행욱 여군단장은 기혼자 출산허용 제도개선 방안을 육군본부 제도과에 건의하여 2차에 걸친 정책심의(1987. 5. 1/5. 21)결과 기혼자 출산허용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우수여성인력이 군에 잔류할 수 있음은 물론 직업성과 인권보장으로 우수여성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후일 제병과로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앞서 여군부사관의 4.4.5제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개인의 기본권이 인력 운영 등의 이유로 임신, 출산에 제한을 두기도 하였으니 이는 소수집단으로서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관점의 차이,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기본권 침해 사례라 할 수 있으니 당시에는 여군발전을 위해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입장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매우 짙었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1970년에 이르러서 경제적 군 운영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육군의 부대 편제개편과 기구개편이 실시되었는 바, 이때 여군의 활성화를 위해 인사참모부 여군처를 해체하고, 육군본부 직할의 독립부대인 여군단을 창설하도록 결정되어 당시 여군훈련소 주둔지(서울 용산구 한강로5가 4번지)에서 1970년 12월 1일 신입여군단장 임동순 대령이 취임하게 되었다.

새로이 창설된 여군단은 여군장병을 양성하던 여군 훈련소와 육군본부 행정지원을 담당하던 육군본부사령실 예하 여군대대를 예속부대로 편입하여

여군단장을 중심으로 한 여군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 시기야 말로 우리군도 자주국방과 경제적 군 운영, 소수정예화, 현대화계획 등으로 군 구조 개편과 부대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로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전문화, 전력화, 과학화로 이어지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소수 행정지원병과로서의 한계와 경쟁력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어 특기개발과 활용분야 확대, 우수자원 확보 및 양성 배출 등으로 끊임없이 잠재역량을 키워가면서 미래에 도래할 여군병과 전환, 제병과로의 통합이라는 대전환 국면에 대하여 준비하여 왔던 성장 발전의 시기라 할 수 있겠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군은 징병이 아니라 지원제로 모병을 해왔다. 따라서 남자들은 병력충원에도 어려움이 없으나 여군은 여성이라는 신체적인 특성으로 전투임무부여가 제한되며, 유지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부대개편 시기만 되면 편성의 필요성, 「적절한 정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여군을 책임지고 있는 병과장 이하 간부들은 여군의 임무와 활용분야 등에 대한 설득과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노심초사해 왔으며 급기야 '여군장병 활용을 위한 자체연구'로 방안이 제기되고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1981년 11월 24일 '여군운영 활성화 계획'이 하달되었는 바 이는 제목과는 매우 상반되는 엄청난 규모의 인력감축계획이었다.

감축계획의 골자는

- ① 여군단본부 예속부대인 여군훈련소의 참모기능을 흡수·통합하여 간부요원 감축
- ② 여군 사병특기 중 타자 직종은 육군본부 및 각 군사령부로만 한정 운용
- ③ 여군 양성교육 중 타자 특기는 모병시 유자격자(有資格者)를 선발하여 군기초교육만 실시한 후 특기교육은 실무교육으로 대치
- ④ 기타 공수, 방송, 헌병, 사격 등 소수 특기인원은 각 특기별 학교나 훈련소에서 분산 양성토록 하는 등 여군병과 정원의 33%를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여군창설이래 가장 대폭적이고 충격적인 축소방안이었다.

이후 수차례의 건의와 협조를 거친 후에 총원 909명의 여군 장병은 당초 감축계획인 600명에서 14명이 증가한 614명으로 정원이 결정되었다.

1987년 제14대 여군단장이었던 권행옥(權幸玉) 대령은 이미 군에 많이 유입되어 있는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 여군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육군본부에 건의하였고, 1988년 제15대 여군단장이었던 김옥이(金玉伊) 대령시에는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여성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한 여성인력 국방분야 활용 확대방안 연구 지시에 의거 '여군단 활용확대 방안과 단계별 추진계획'의 작성에 참여하여 여군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1989년에 들어 육군은 여군병과를 해체하고 보병을 비롯한 제병과로 전과한다는 「여군장교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 동년 3월 육군 정책회의, 국방부 정책심의회에 통과되어 현역 복무중인 여군장교의 전과를 시행하고 초임장교는 1990년도 획득에 반영한다는 내용과 이에 따른 관계법 및 규정을 개정토록 결정하였다.

(2) 간호병과 체제정비 및 주요활동

전쟁발발 당시 9만여 명에 불과했던 국군의 병력은 휴전 직후 60여만 명에 이르렀고, 1954년에는 74만 명에 달했다. 전투태세에 완벽을 기하며 일시적인 휴전상태하에서 육군의 합리적인 정비와 지휘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의무부대 역시 육군조직의 변화 과정에서 간호장교가 소속된 부대가 휴전당시 31개였던 것이 1954년에는 50개까지 증가하였다가 1961년 41개로 감소하였다.

간호병과의 정비기간을 통한 조직의 변화를 살펴보면 간호계가 간호과로 승격되어 제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1, 2군사령부에 간호과가 편성되어 보다 조직적인 업무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인력 면에서는 전후 사회적 안정으로 군의학교 내 간호생도 지원이 줄어 그 과정이 폐지되고 후보생 지원

또한 저조하여 1957년 말에는 휴전 이후 최저수준으로 감소되어 5개 육군병원에 간호사관교육대를 설치 1961년 말에는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교육면에서도 초기에는 도미과정이 물리치료 및 초등조사반 교육과정뿐이었으나 간호행정, 마취간호, 수술간호, 일반, 정신간호 교육으로 확대되었고, 장교 군사영어반 교육, 주한 미실무교육 간호관리반 교육, 대학원 위탁 교육 등을 실시하여 간호장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의무부대 파월로 간호장교들도 월남 전장에 용감히 뛰어들어 아·적군을 가리지 않고 적십자정신에 따라 간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전상자들을 돌보았다.

그러나 파월로 인하여 간호병과는 간호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민간 간호사의 해외 취업 붐으로 인력획득이 어려워짐에 따라 을종 위탁생제도 등 여러 면으로 대책을 강구하였다.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하여 간호병과의 존속마저도 위태로울 지경이 되자 장기적으로 우수한 간호장교를 수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 간호 교육기관설치 필요성을 공감하여 1966년 6월 문교부로부터 합법적인 학교기관으로 승인을 득하게 된다.

창설 당시에는 학교의 부서별 임무가 세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간호에 관한 전문적인 학술 및 기술과 기타 간호장교로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라는 임무와 기능 아래 업무를 시작하였다. 1969년 보건사회부로부터 정규 간호사를 배출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1970년 문교부로부터 교직과정 설치 승인을 받아 졸업자에게 양호교사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동년 12월 31일 후방지역 육군병원 및 육군간호학교가 국방부 직할부대로 지휘감독권 이양과 동시에 명칭 변경에 의거 국군간호학교령이 제정되었다(대통령령 제5470호).

다음은 남자 간호장교 임관으로 민간 간호계에서는 1960년대부터 해외취업의 이점으로 보다 많은 남자 간호사가 배출되어 남성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한편 군내 간호인력 상황은 파월과 해외진출로 간호 인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로 병과 입장에서는 남자 간호장교 획득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 본격적인 검토결과 1974년 3월 남자간호장교 후보생을 모집하여 26주간의 교육 수료 후 동년 10월 19일 5명이 임관되었다.

다음은 간호사관학교의 4년제로의 승격을 들 수 있다. 1967년 육군간호학교로 개교한 이래 3년제 전문대학 과정이었던 국군간호사관학교가 4년제 정규대학 과정으로의 승격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은 첫째, 현대간호개념이 예방중심의 전인 간호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의 개편이 요구되었고, 둘째, 간호대상인 국군장병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셋째, 전체국군장교의 학사 이상의 자질향상 계획 등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간호병과에서는 4년제 간호대학으로의 학제 단일화 움직임이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대두되었고,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이 1981년 1월 5일 개정되어 오랜 기간 숙원하여 오던 4년제 정규대학 과정으로 승격되었다.

한편 간호병과에서는 비행 간호장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배경으로는 환자용 수송기내의 전문치료요원의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주류군 환자공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장교를 공군에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엄선된 10명의 장교들이 1991년 9월 항공의학연구원 교육훈련부에 입교하여 고공비행 상태에서 간호할 수 있는 교육과 실무교육을 마친 후 동년 12월 27일 수료식과 동시에 임무 수행함으로써 최초의 비행 간호장교로서 활동하였다.

4. 여군의 성장 발전기(1990~현재)

여군이 군에서 활용되어온 지 40여 년이 흐른 1990년대에 이를 때까지 여군은 군 조직에서 주류에 통합되지 못하고 주류집단을 행정적으로 근무 지원하는 '여군'병과와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여 온 '간호'병과의 여군들로 육군에서만 활동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자 '여군'병과가 제병과로 통합/전환되면서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운영개념, 조직,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와 진전을 거듭하게 되고 사회여성 인력활용 확대 추세와 병행하여 1990년 후반에는 공군과 해군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가히 제2의 여군창군에 버금가는 것과 같은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군조직과 여군들 개개인은 새로운 여건과 환경에 적응하여 남군 조직에 뿌리 내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여군장병들 스스로가 개척자 정신을 발휘하여 현 위치와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여 활용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후배 여군들의 길을 넓히게 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임무수행해 왔다.

각 군에 여군의 진입이 순조로운 진행을 하고 있는 2000년대에 이르러 국방부 차원의 여군 장기 활용계획이 마련되어지고 육군의 여군 양성 교육기관인 여군학교 교육을 남군과정에 완전 통합하면서 육군 여군학교는 해체되고 육·해·공군 여군 운영을 국방부 차원에서 관장하도록 국방부 여군 발전단이 창설되었는데, 이는 각 군의 여군을 포함 국방부와 산하 조직의 전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국방여성정책을 발전시킬 전담부서로서 국방부에 여성정책팀으로 전환되면서 국방여군 및 여성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렇듯 제병과의 '여군'들이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던 기간에 간호병과 또한 간호사관학교 폐지라는 커다란 난관을 맞게 되나, 우수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라는 대명제로 다시 부활하여 간호사관학교장의 장군 진출 등으로 군 내외에서 그 위상을 높였으며 간호병과 발전의 힘찬 동력이 되고 있다.

(1) 제병과 통합 및 야전배치

「장교인사제도개선」 기본계획에 의거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0년 1월 1일부터 여군병과가 폐지되었으며 통합된 병과 개방은 단계별로 연도

별 획득되는 인원으로 임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단계로 1990년 획득은 보병, 정보, 병참, 부관, 경리, 정훈, 의정이며 1991년도에는 이에 더하여 통신, 수송, 화학, 헌병이 1994년도에는 공병, 1997년에 수의, 병기를 개방하여 2000년에는 포병, 기갑, 군중을 제외한 전 병과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되었다(항공, 감찰 등은 전과나 파견이 가능함).

1990년 사관후보생 35기는 35명이 배출되었고, 1991년 44명, 2000년에는 102명 등의 수준으로 증가하여 병과전환 이전 10명 안팎의 임관과 비교할 때 대폭 증가된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양성교육은 별도로 하되 보수교육은 남자군인과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 결과 육대, 고군반, 초군반을 이수해야 하며 경과조치로 본과정 입교 요건인 하위 보수교육 필의 예외를 인정하여 최초로 육대 기본과정과 보병 고군반에 각각 1명씩 입교 수료하였으며, 초군반의 경우 제35기의 경우 임관과 동시에 각 병과학교 학사 초군반 과정에 남군과 같이 입교, 수료한 반면 보병장교 14명(전산 제외)은 참모총장 지시에 의거 여군학교에 별도의 과정을 설치하여 교육 실시하였다.

이는 보병의 경우 야전 전방부대 소대장 요원으로 활용이 제한되어 최초에는 여군부대에서만 활용토록 하였기 때문이었으나 1991년 제36기 보병장교 15명이 보병학교 초군반 제15기 과정에 입교, 수료함으로써 보수교육은 완전 통합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여군하사관도 1992년도부터 병과별 해당 학교 초·중·고급반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이수토록 개선함으로써 일대 전환점이 되었고, 교육과정에 입교한 여군장교 및 부사관들은 상층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학습 분위기 향상과 남군동료들에게 동기유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군 자질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인사제도 개선의 성공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였다.

다음은 병과전환 이후 여군조직 개편 사항이다.

먼저 육군본부 직할로 여군학교 승격개편(1990. 2. 1)이 이루어지고, 여

군단은 1990년 말까지 육본직할로 유지되다가 1991. 1. 1일부로 인사참모부에 여군처로 개편, 신설되었다. 이후 1994. 2. 1일부 인참부 인사관리처 여군과 개편에 이어 이듬해인 1995. 3. 6일부로 인참부 인사기획처 여군담당관실로 개편하게 되었으나, 2006. 4. 4일 육군 내에서 여군이 제병과에서 완전히 뿌리내리고 있다고 보고로 완전 폐지되었다.

장교의 경우 1992년도 병과별 보직관리 모델과 1999년 12월 1일부 시행이 공포된 육방침 57호 여군장교 인사관리 방침이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하겠다.

보직은 원칙적으로 보직제대 또는 직위는 제한하지 않았으나 강인한 체력 및 직무를 요구하는 전투부대 및 직책, 광범위한 수색, 정찰, 특수작전 임무수행 부대, 부대의 지리적 위치 및 임무수행 여건상 평시에 적과 직접적인 교전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부대 및 편의시설, 주거시설 확보에 극히 제한을 받는 부대에서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부대에서 보직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경력관리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모경력 위주로 경력을 관리하며 필수직위와 선택직위로 구분, 계급에 상응한 경력관리를 하도록 통제하고 필수직위는 현행 통제직위를 이수하지 않더라도 계급에 상응한 부지휘관직위 또는 제대별 참모직위, 또는 여군장교 활용이 가능한 지휘관직위를 개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휘관직위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희망에 따라 여군 활용 가능 직위에 보직할 수 있으며 지휘관 보직기간은 전문형에 준하여 소대장 12개월, 중대장 18개월, 대대장 24개월, 연대장 18개월을 적용토록 하였다.

여군하사관의 인사관리 및 운영은 체력, 기능,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731개 활용가능 직위를 설정하였고, 연도별로 점진적인 초임하사 획득확대를 통한 병과별 양성인원을 계획하였다. 이는 1996년도부터 점진적 증가시 2000년을 기준으로 활용목표 소요에 일치하게 되며 중사 이상의 여군인력 운영은 복무연장, 장기복무 및 진급으로 통제함으로써 우수 여성인력의 영

역을 확대하도록 검토하였다.

그러나 과도기 상황에서 중사이상 여군들이 실제 야전에서 해분야 근무를 해본 결과 상이한 양성 및 보수교육 체계와 진급 이전 행정근무지원 위주의 경력으로는 전문성과 경험부족으로 실무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하사 임용시부터 14개 병과로 분류, 병과별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군과 동등하게 야전위주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관 병과에서 특기가 변경된 복무연장자 및 진급자는 선발과 동시 초급반 교육이수 후 해병과 특기분야로 보직 변경하였으며, 또한 육군 및 각 군사령부 처부별로 행정하사관의 병과 조정을 참모부 기능에 맞는 병과로 전환하여 보병, 부관, 정보, 병참, 병기, 수송, 경리, 통신, 정훈병과 등으로 특기를 변경함으로써 부관병과 점유율이 79%에서 29%로 감소하였고 연장 및 장기복무 진급 선발 시에도 병과별, 특기별로 제도를 개선하게 됨으로써 1997년도 후반기부터 육본 여군대대 시행에 이어 각 군 사령부 여군대도 서둘러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병과전환 이후 여군장교보다 실질적인 병과 및 주특기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군하사관의 인사관리가 진일보되었고 이후 양성교육이 남군과 통합되면서 초임하사부터 병과별, 특기별로 각급 야전 배치에 이루어지면서 각 군 사령부 여군대는 해체하게 되었으며, 병과별 보직관리 상태와 운영상의 적합성, 직책별 임무수행능력, 복지여건 등을 분석, 여자 군인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여성인력 활용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軍과 맥을 같이하고 힘을 실어 병과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였다.

한편, 이 시기에 간호병과에서 주목되어지는 이슈로는 간호사관학교의 폐지와 존치, 그리고 간호장군 탄생에 들 수 있다. 1998년도 국민의 정부 이후, 군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오랫동안 회자되어온 간호사관학교의 효율성, 타당성이 거론되어 폐지가 결정되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모집을 중지하였으나 이에 대해 간호병과에서는 안정적인 우수간호인력 확보와 국가기

관의 우수여성인력에 대한 교육기회부여 제거방지를 위해 간호사관학교의 부활 및 존치타당성을 정계, 여성계, 간호협회, 간호학회, 예비역 동문회 등과 협조하여 2002년도에 폐지론을 백지화하고 존치토록 군을 다각도로 설득, 다시 유지하게 되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 군진지부 회원인 현역 간호장교단은 물론 예비역 동문들의 승리로 이를 계기로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각종 시설투자과 교육관련 사항에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는 등 제2의 창설을 맞은 듯 병과의 변혁이 있었다.

또한 이 사항과 연계하여 차후 육군에서 여군장군 진출 검토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계급 인력구조, 사관학교장 직위 장군 활용 등을 들어 간호병과에서 양승숙 대령이 2002년 1월 1일부로 장군으로 진급, 최초의 여군장군이 되어 임기 2년을 마친 뒤 전역하였다.

사관학교가 부활된 이후 학교장 직위를 준장직으로 편제화하면서 이후 2003, 2005, 2007년 4회에 걸쳐 장군이 진출되는 등 간호병과의 임무영역을 넓히는 작업을 하며 군내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병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간호병과의 괄목한 만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제병과의 여군들은 계급별, 특기별로 야전제대에서 정착하고 있었으며, 특히 단순임무 위주로 단기 활용되어 오던 여군하사들의 야전실무 배치가 되면서 육군본부와 각 군사령부의 여군부대들이 해체되고 양성교육 또한 장교의 경우 3사관학교 학사과정으로, 부사관은 부사관학교 과정으로 완전 통합되면서 여군 창설초기 여자의용군교육대로 시작하여 우수한 여군장병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여군학교는 여군의 모체부대로서, 유서 깊은 양성교육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2000년 10월 31일부로 해체되었고 이어서 대통령령 제 17758호에 의거 동년 11월 1일부로 국방부 직할기관인 여군발전단이 새롭게 신설, 구 여군학교 부지에서 창설되었다. 이는 국군역사 최초의 여성정책 전담기구가 국방부 직할 조직으로 출범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2) 해·공군 여군의 개방 및 육성

1993년 4월 정부 제2장관실로부터 3군사관학교 여생도 입학허용 검토요청을 받은 국방부의 검토 지시와 1994년 3월 대통령 구두지시에 의거 공군에서는 전(全)병과 활용원칙으로 여자사관생도를 양성하되 공사 49기(1995년부터 입교) 생도정원 10% 내외로 입교하도록 의결하고 국방부에 보고하였다. 이듬해인 1994년 2월 여자 사관생도 모집 조기 승인 건의 등 여생도 운영과 관련 적극적으로 공군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동년 3월 하달된 결론은 여생도 입학허용은 시기상조이므로 여건이 조성되면 각 군 사관학교의 여건에 따라 입학을 허용하기로 한다는 유보결정이었다.

공군에서는 우선 여자사관후보생을 모집하여 육군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있는 뒤 1995년 4월 또다시 여성의 사관학교 입학허용에 관한 국방부 간담회가 제1차관보 주관하에 개최되었는데 당시 공군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현행 공군인력운영상 병력 충원에는 문제가 없으나 향후 2000년대 중반 이후 병력자원 감소 및 여성역할 증대의 사회적 추세 등을 고려시 우수 중, 장기 복무장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사관학교 입학허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둘째, 전투조종사 양성은 시행 초기에는 개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여성에게도 개방되어야 할 것임. 그 이유로는 병역자원의 감소 및 사회 전 분야에 여성이 진출하는 사회적 분위기 감안, 미 공군의 경우 생도모집 초기에는 비전투분야에서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전투분야에까지 근무영역을 확대하였음.

이에 결국 국방부 인사국에서는 1995년 5월 13일 시범적으로 공군사관학교에 여생도 입학을 허용한다는 검토결과를 하달하였으며, 결정내용은 공군의 여생도 선발계획에 따라 1996년 49기 사관생도 모집 및 선발에 반영하여 1997년부터 모집정원의 10% 내외(연간 20명 입교, 15명 임관목표)에서

입교시키기로 한 것이었다. 이때 육·해군에 대해서는 공군의 모집, 교육, 내무생활, 훈육 등 진행과정을 심사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1998년 육사생도의 모집 적정인원은 임관 18명, 모집인원은 25명으로 판단되었고 병과별 최소 2명 이상 분류되도록 고려되었으며 활용범위도 사단급 이상 부대의 참모장교, 학교기관 및 신병교육대의 교관 등 제한된 보직관리에서 차후 대대급 이상 참모장교, 학교 참모 및 지휘관, 정책부서 업무담당자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해군도 1998년부터 여자사관후보생 과정을 신설, 매년 18명 정도를 양성하고 그 성과에 따라 2003년부터 10명 정도의 해사 여자생도 선발을 검토, 이에 따라 1998년부터 해상 2개 병과(항해, 보급), 육상 6개 병과(정보통신, 경리, 정훈, 해병보병, 통신, 보급)에 일정 비율을 여군에 할당,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2003년 이후부터는 잠수함, 특수전 분야를 제외한 전 병과로 확대해 갈 예정이라 하였으나, 실제 여자생도 입교는 1999년이었으며 인원은 공군과 같은 수준의 20명이 되었고, 공군은 기계획대로 1997년부터 매년 20명 정도 선발·양성해 2001년 이후 전 병과에 여군인력을 할당 운영키로 하였다.

공군 부사관은 2001년부터 매년 90명씩 모집하고, 해군은 2003년 이후 매년 40명씩 모집 운영키로 했다. 이러한 해·공군의 여군활용 계획을 포함하여 1997년 3월 여군인력 활용확대 계획이 2020년을 기년도로 수립되었는 바 각 군별 특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당시 간부정원과 비교 1.7% 점유율에서 3.6%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고 활용분야도 비전투 행정직 위주에서 탈피, 전투병과를 비롯한 모든 병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고 이 계획은 1999년 8월 국방부장관의 여군인력 확대 지시로 우수한 여성인력 획득과 여성특성 부합 직위 및 비리우려 직위에 대해 여군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병영문화 창조에 기반을 두고 장교중심으로 확대, 하사관은 각 군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였고 2020년까지 간부정원 대비 5%로 수정

보완하여 2000년 2월 21일 재정립하였으나 2006년 국방개혁법 입법시 다시 장교는 7%, 부사관은 5% 수준으로 재조정되어 반영되었다.

여군인력의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활용분야가 거침없이 열려져, 차제에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수인력 확보 및 양성이므로, 이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일상생활이 점차 남군조직에 통합되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성(性)에 대한 입장과 상호 인지력 향상이 요구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성희롱 방지지침 등이 각 군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었다.

(3) 국방여군/여성시대 진입

새로운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 조직에서 여군들은 각 군의 특성과 조직문화 속에서 병영저변의 곳곳에 위치하면서 임무수행간 여성특유의 성실성, 섬세함, 진정성을 바탕으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병영문화 개선 정착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여 왔다.

그리하여 각 군의 여성정책이 실시간으로 확인되어지고 통합되면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국방부 직할 기관인 여군발전단이 출범하게 되었고, 사회의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정책과 연계하여 여군들의 군 생활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영위될 수 있도록 제도발전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오던 중, 각 군의 여군을 포함하여 여자군무원과 공무원을 아우르는 본격적인 여성 정책 임무를 수행하도록 2006년 1월 1일 부로 국방부 인사복지본부 내 국방여성정책팀으로 전환되었고, 2008년 새로운 정부에 의한 조직 개편 시 팀은 다시 '과'로 개칭된다. 이로써 1990년 '여군'병과 전환으로 시작된 여군조직의 변화의 출발은 국방여성조직으로 진화되어 정부차원의 여성정책을 펼쳐가게 되었다.

1) 국방부 여군발전단 운영

새로이 출범된 여군발전단은 각 군을 대표하는 체계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각 군 여군들에게 여성정책 및 여군관련제도를 전파하고 상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군정보공유의 장인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여군 역사자료를 총망라 디지털화하였으며 여군 사이버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1C가 요구하는 미래 여군 리더 육성”이라는 주제로 2003년 9월 6~7일 양일간 여군의 날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워크숍을 개최, 육·해·공군 여군 발전을 위한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동년 11월 21일 실시된 여군부사관 워크숍은 각 군 병과별 정보공유 및 여군부사관 선·후배간의 연대가 강화되는 유익함도 갖게 되어 유사한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다.

이렇듯 네트워크 중심의 구심점으로서의 입지를 세우는 것과 병행하여 단 내부에서는 실질적인 정책업무를 개발하였는데 양성평등교육을 통한 성인지력 제고 사안으로 국방부는 정부의 주요 여성정책 방향인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군내여성인력 증가에 따른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우선 군 간부의 의식개선과 각 조직, 실무에서의 적용을 목표로 2003년부터 각 군의 학교기관 교관 및 훈육요원, 부대별 인성교육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성 인지력 향상교육'의 위탁교육을 지속 실시하였고, 2005년에는 국방부 통제 과목에 반영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많은 장병에 대한 교육효과를 제고시키고 성 군기 사고예방에 기여코자 on-line 상에서 웹-교육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이외에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성별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정책의 전 과정에서 성(Gender) 요인을 고려하여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집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는 2005년도에 '병영시설 개선'과 '군내모성보호 강화' 2개 과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여군 특성을 고려한 국방시설기

준 개정과 군내 모성보호관련 규정/제도를 개선 발전시켰다.

이렇게 국방부 여군발전단은 실시간대의 현행업무와 정책업무를 정부와 군차원에서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조직으로 융통성과 대응력을 발휘, 전 여군의 중심점으로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해 오던 중 2005년 12월말부로 국방부 정부조직개편에 포함, 전격적으로 발전적 해체를 보고 2006년 1월 1일부로 국방부 인사복지본부 국방여성정책팀으로 전환되었다.

2) 국방부 여성정책팀 운영

국방여성정책팀은 국방부 여군발전단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수행해온 임무에서 그 정책 수혜대상을 넓히고, 무엇보다도 국방조직 내의 여성인력들이 상호관심을 갖고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network) 역할과 허브(Hub) 기능을 수행하였다.

사회변화와 정부여성정책방향, 국방개혁2020과 국방목표를 근거로 군이 요구하는 여성정책의 방향, 국방여성들이 추구하는 바와 지향점 등을 고려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상, 팀의 실질적인 존재를 국방여성들이 빠르게 인식하여 조직의 기틀을 다지게 됨으로써 초경량조직(7명: 현역 4명, 공무원 3명)으로서 보다 정책업무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모성보호문제는 기혼자의 경우 군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으니, 이는 저출산 문제와 연계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정책에서 세부분야로까지 지속 발전시키고 있었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받아들여 현실화하고 있었다.

특히 육아휴직 관련, 2006년도에는 휴직기간을 퇴직수당지급시 군복무기간에 삽입토록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였고, 2007년도에는 기간 중 대체인력뱅크제(여자군무원)와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토록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2008년)을 개정하였다.

또한 여군의 경우는 그 신분의 특성상 전·평시 개념으로 좀더 심도깊은 연구로 청원휴가 제도를 개선, 임신중 유산, 사산의 경우 기간별 적절한 휴가일수를 보장하였고, 전시 전방지역 임신, 출산, 양육에 관련된 여군에 대하여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후방으로의 보직조정 지침과 전시 전방지역 부부군인 자녀보호 계획수립을 포함 각 군 전시 군인가족 보호계획에 반영되었다.

이외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제 시행 등이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여군들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의 원천적인 해결방안인 행정부수 병력책정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중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이 3세에서 6세로, 1년 기간에서 3년으로 공무원인사법이 연장개정되자 이를 계기로 오랜 숙고 사항인 업무공백 방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풀어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군의 경우 대체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업무공백기간이 길어진 상태에서 전투력 유지에 차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군과 여군들도 더욱 곤란을 겪게 되어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육아휴직인원을 정원 이외로 관리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 법률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됨으로써 2008년부터는 업무공백 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로써 군내 모성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으로 국방여성의 모성보호 강화를 이루게 되었다.

다음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국방여성 잠재능력 극대화 분야로 직무수행 관련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기회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제안은 국방여성 리더십 향상소집교육을 각 군의 현역 훈육요원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과 군무원으로 확대 시행하여 국방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자부심을 고양시켰다. 또한 여성고충상담관의 상담능력 및 기법을 배양시켜 사명감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방여성정책 포럼, 국방여성리더십향상 소집교육, 국방여성인적자원개발 워크숍,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양성평등실현 분야는 절대다수 남성들로 구성된 군 조직에서 절대소수인

여성들이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환경과 상태에 따라 느끼고 겪게 되는 매우 중요한 무형의 근무환경으로서 많은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분야라 할 수 있으나, 결국 이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화로운 조직문화 속에서 개인과 조직의 궁극적인 발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양성평등 제고를 통한 선진 국방문화 창출을 정책과제로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인권위 권고로 기혼여성의 여군응모 자격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남군과 달리 전역시 단일 역종인 '퇴역'을 원에 의한 '예비역 전환'이 가능하도록 여군전역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2008년 정부입법으로 병역법을 개정 추진하기로 되어 있어 우수한 여성인력의 예비전력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전역 이후에도 희망할 시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국방여성정책업무는 모성보호와 인적자원개발, 권익증진, 고충처리와 같이 국방여성 개개인들에게 직접적인 변화와 영향을 거쳐 바로 달라지는 부문의 업무라 할 수 있으나 국방 조직 내 양성평등 실현과 같은 분야는 그 보다는 차원을 달리하여 여성정책의 기초와 방향을 잡는 일부터 조직과 조직원의 가치추구, 의식, mind 등을 움직여 큰 틀에서 국방정책과 여성정책을 접목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국방정책을 만들어내는 일로 이는 국방여성 정책팀만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고유 업무라 할 수 있으며, 국방여성정책팀⁵⁾이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궁극적 지향점은 역시 진정한 양성평등제고를 통한 선진화된 국방문화 창출에 있다 하겠다.

5) 2008년 3월 4일부로 국방부 조직개편에 의거 인사복지본부 국방여성정책팀에서 인사복지실 국방여성과로 개편되었음.

5. 맺 음 말

대한민국 건군(建軍) 60주년, 엄정한 역사의 흐름 속에 한줄기 도도한 물줄기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여군(大韓民國女軍)이었다.

말 그대로 나라가 위기가 빠졌을 때 오로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발적 의지에 의해 군문에 뛰어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한민국 여군은 이렇듯 '구국'이라는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그러한 여군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떤 신분으로 군 조직에 합류되어 참전하게 되고 신분변화의 과정과 조직변화의 과정을 겪으며 소수집단의 일원에서부터 남군과 통합 발전하게 되었는지 일련의 과정을 짚어봄으로써 향후 국방개혁의 거친 파고를 거뜬히 넘어 그 지평을 넓히게 될 것을 가히 예측할 수 있다 하겠다.

여군창설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하여 전쟁이 전 정부수립 직후 어지러운 사회현상과 연계되어 후일 여군 창설을 주도하게 되는 여자배속장교와 간호장교의 활동을 통해 이미 시대가 여성인력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질적인 여군창설과 6·25 참전 활약상은 여자의용군, 간호장병, 여자학도의용군, 각 유격대 여성들을 통해 보이는데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를 이 땅의 여성들이 그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휴전 이후 군에 잔류된 여자의용군들이 정식으로 의용군이 아닌 여군으로 신분 전환되고 체제정립과 각종 제도정비를 통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며 조직 속에서 집단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신만의 특기를 살려야 하는가 하는 절실한 노력을 볼 수 있으며, 여군단 창설을 기점으로 '여군'이라는 단일병과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며, 외적으로 위용을 갖추고 내적으로는 여군의 전통과 조직문화를 가장 활짝 꽃피운 시기였

으나, 경제적 군 운영이라는 명제 하에 늘 병력감축의 대상에 오르게 되어 여군간부들은 내심 노심초사였으며, 여군의 우수성과 사회우수여성인력 활용확대 추세에 의거 여군병과를 전환, 제병과로의 통합이 진행되면서 여군이 가히 제2의 창설을 맞게 되는 것과 같은 개인과 조직의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게 되는데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제병과에서 남군 등과 나란히 근무하며 자부심과 사명감, 책임감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양적, 질적 팽창과 발전의 걸림돌이라 여겨졌던 '여군병과'가 사라지게 되자 울타리이자 구심점이었음을 느끼게 되었고, 아직은 여러 가지로 불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뿌리내리는 여군들 자신들도 쉽지 않았고, 이들을 관리 운영하는 남군 상급자와 동료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전투병과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곤 하였으나, 여군들은 스스로 개척자임을 자처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시행착오 속에서도 여군활용분야 확대에 대한 가능성과 긍정적 평가, 정부정책, 사회여성 인력확대 등에 따라 해·공군이 개방 육성되기 시작하여 여군병과 전환이 각 군으로까지 이어지는 것과 병행, 여군하사관의 본격적인 야전전환에 이어 여군부대가 해체되고 양성교육의 남·여 통합이 종료되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각 군 여군을 관장하고 이른바 국방여군정책을 추진하는 여군발전단의 활동이 그려졌고, 이후 국방부 조직 내에서 여자공무원, 여자군무원을 아우르는 국방여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실현, 모성보호, 잠재역량강화, 권익증진 업무를 하는 조직으로 진화된다. 이제 더 이상 여군만의 조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국방여성과 국방여성정책의 중심은 '여군'으로 정부여성정책과 연계 추진되고 있다 하겠다.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아쉬움을 느끼게 된 점은 활용확대의 그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자 보병에 대한 시각 차이를 들 수 있겠다. 군의 전력화, 과학화, 전문화에 있어서 여자 보병은 향후 전장상황에서도 임무수행이 가능하며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개방되어졌기 때문에 미래전에 있어서 여자보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운용상의 문제로

보다 확신을 갖고 일관성 있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여자보병을 우리 군이 길러낸 중요한 자산(資産)으로 보고 잘 활용함으로써, '여군' 병과전환과 활용확대가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원고투고일 : 2008. 5. 30, 심사수정일 : 2008. 7. 31, 게재확정일 : 2008. 8. 8)

주제어 : 여군, 여군병과, 제병과통합, 국방여군, 국방여성, 모성보호, 양성평
등, 국방여성정책, 국방여성정책팀, 국방여성시대

<ABSTRACT>

Foundation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Women Soldiers

Min, Kyung-ja

Through the 60 rigorous years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overcome, it is possible to gleam on the series of streak of light the Women Soldiers' history and recognize the chain of process on how the women soldiers overcame their social status and joined in the military and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how they integrated and developed with the ROK Armed Forces as a minor group through changes in the social status and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prospect on how the Women Soldiers will overcome any future national defence innovation and foster a more firm stance within the military.

Upon careful scrutiny of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Women Soldiers during the Korean War: how women have participated as militias and taken an important role: how women have showed continuous efforts in establishing the new system and improving the system after their status as militia has been transferred to the Women Soldiers we can see that the Women Soldiers are working their way in developing their own *women* speciality as soldiers.

Moreover, in addition to the *Women Soldiers*, the *Women's Army Corps* was established and thus came the time when the women have gained a dignified appearance and internally blossomed the heritage and culture of the Women Soldier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lso time when the

military had to downsize its size because of the economic hardship: and women officers were targeted to the downsize: however, by recruiting superior women, this special group demonstrated their excellence as soldiers thus, continued their training in the Women Corps, and integrated as a typical military branch. The great activity that women displayed in all the branches: thus the Navy and Air Force opened their doors for women, and the integrated education of the Women Soldiers ceased: and with women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Army, Navy and Air Force: the women have started the national defence women epoch, in whic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upports for a thorough women related policies. The National Defense Women Policy Team started operation as an official body, the policy team mainly focuses on the national defence women (civil official, civil service employees) and women soldiers. The National Defense Women Policy Team transferred into an organization which promotes the right of women, protection of motherhood, equality of sex and the policies which the national women policy team pursues. I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t is hard to see the organization as solely a women soldiers' organization but one thing is sure: that in the middle of the National Defense Women and National Defense Women Policy, there are the women soldiers.

Key Words: Women Soldiers, The Women's Army Corps, Women's Military Branch, National Defense Women Soldiers, National Defense Women, Protection of Motherhood, Equality of Sex, National Defense Women Policy, The National Defense Women Policy Team, The National Defense Women Epoch